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월 20일(금) (음력 12월 29일) Пятница 20 января 2023г. № 2 (1201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월19일(목) 러시아의 주현절(예수의 공식 출현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 웨르흐네에 호숫가의 성수에 주민들 입수.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음력설을 맞이하여

1월 22일(일)은 음력설이다. сахалин 주 내 많은 한인단체들이 음력 설맞이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주한인협회(회장 오진하)에서는 1월 21일(토)에, <сахалин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천영곤)와 코르사코브 한인회는 1월 20일(금)에 설맞이 행사를 열 계획이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는 1월 21일(토) 오전에 노인정 모임을 열어 어르신들을 위주로 음력 설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해졌다. 그의 여러 지방에서 음력설 행사가 펼쳐진다.

сахалин주에서 '나와가' 생산 1천 톤 이상 어획

'나와가' 성어기 초기부터 сахалин의 페르페니에 연안과 북서부 해역에서 주요 조업이 이뤄진 가운데 1천 톤 이상이 어획됐다. 심심한 냉동 '나와가'는 작은 마을들을 비롯해 сахалин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나와가'를 1kg당 55루블리 - 100루블리까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수산업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지난 한 주간 신선한 냉동 '나와가' 40톤이 сахалин주 주민들에게 판매됐고, 1월 초부터는 총 42톤 이상이 판매됐다. 현재 냉동 '나와가'는 сахалин 17개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сахалин주에서 특별 조업 마무리는 1월 말 - 2월 초까지로 예상된다.

сахалин주,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 지역들 순위 중 5위에 진입

러시아의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35개 지역들의 순위가 매겨진 가운데 сахалин주가 상위 4위에 올랐다. 이에 대한 조사는 2022년3/4분기 결산 러시아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국민 공동체 발전재단이 준비했다.

1위는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가 차지했고, 2위에 네네츠크 자치구, 3위에 추코트카 자치구, 4위에 сахалин주가 올랐다.

극동 연방관구 지역들 중에서는 마가단주가 6위, 야쿠치야가 7위를 차지했다.

сахалин주에 기록적 최저기온 측정돼

сахалин에서 1월 18일(수)에 기록적인 최저기온이 측정된 가운데 сахалин 북부에서는 영하 44.9도까지 떨어졌다고 сахалин 기상청이 전했다.

"1월 18일(수) 밤에는 기록적인 기온이 측정된 가운데 오히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기온이 44.9도로 측정되어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저기온보다 1.5도가 낮다."고 일기예보관이 강조했다.

올해 сахалин과 쿠릴 주민 4,500명 이상 노후주택으로부터 새 주택으로 입주

сахалин 지역에서 노후주택 12만m²에 살고 있는 4천655명의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сахалин주에서는 새로 건축된 주택을 제공하며, 노후주택 상환 대금을 지불하고, 수리 후 2차 공매해 주택으로 이주하게 하는 등, 완성도 높은 이주 체계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오히려 시지구에서는 노후주택의 면적을 730명의 주민이 사는 26,000m²로 축소시킬 계획이고,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는 915명의 주민이 주택의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코르사코브 시지구에서는 노후주택으로부터 488명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우리는 적합한 주택 거주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노후주택으로부터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속도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지난해에는 연방 중심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100억 루블리 이상을 받았다. 이 자금은 주택 구입과 주민들의 이주 자금 지급에 쓰였다. 올해 주지사는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속도를 유지하고, 이런 지표상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라는 과제를 제시했다."라고 сахалин주 건설부 장관인 알렉세이 콜레와티흐가 언급했다.

сахалин주는 2017년 1월 1일까지 노후주택으로 인정된 노후주택의 주민 이주를 2020년에 완료한 국내 첫 지역들에 포함됐다. 새로운 이주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에는 3,898명의 주민이 이주했고, 2022년에는 3,951명의 주민이 노후주택에서 이주했으며, 2,590명은 새로 건축된 주택을 받았고, 그의 주민들은 별도로 이용 가능한 이주체계를 이용했다.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로 가장 앞선 지역은 오히려 지역이다. 지난 1년간 603명의 주민이 노후주택으로부터 주택 15,000m²에 이주했다. 코르사코브 시지구에서는 12,000 m²에 이주시켰고, 577명의 주민이 자신의 주택 여건을 개선시켰다. 홈스크에서는 노후주택으로부터 447명이 주택 11,600 m²에 이주했다.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분야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주택을 살펴보고, 건설자들에게 결함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해 이를 시공자들이 시설을 준공하기 전까지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노후주택의 주민들을 72,000 m²의 주택으로 이주시키며, сахалин과 쿠릴 주민 32,000명 이상의 주택 여건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지사 сахалин과 쿠릴에 아동 사회적 관광 프로그램 연장

1월 16일(월)부터 сахалин 지역에서 아동 사회적 관광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 이 기획에 5학년년부터 11학년까지 학생들 2만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오히려 지역, 쿠릴열도의 학생들이 무료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сахалин 주지사는 아동 사회적 관광 프로그램 연장 결정을 채택했다. 이 프로그램에 сахалин주 전 지역의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 우리는 애국교육과 сахалин 선도기업들에 산업 견학을 추가함으로써 이 기획을 다양화했다. 이 프로그램에 하루에 200여 명 이상의 сахалин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сахалин주 관광부 제1 차관 나탈리아 파홀코바가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박물관에서 도전게임 형태로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아크와 시티(수영장)' 방문, '두뇌싸움' 지적게임에 참가 등 기본 견학 방식이 유지된다.

기획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애국교육과 장래진로 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견학 방식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에는 친환경 사슴 농장과 '푸쉬스틱' 간이 비행장의 '애국가'공원 방문, сахалин 기업체들의 산업 견학이 포함돼 있다. 견학 시 сахалин의 다양한 시설들에서 학생들의 표준 급식 제공은 의무사항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주 관광부가 담당하고, 지역문화부와 교육부, 사회복지부, 'сахалин' 철도회사와 '사흐파스플로트' 회사가 협력한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설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출장소 **박상태** 소장과 만나 지난해의 특징, 올해의 사업 계획을 알아보았다.

- 2022년은 소장님께서 어떤 해였습니까? 출장소 소장 입장에서 보시는 지난해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요?

- 저는 아시다시피 작년 2월 말에 왔습니다. 부임하여 가장 먼저 새고려신문사 방문했고 첫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동포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또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가 많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사실 제가 하고자 했던 사업 계획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사할린 직항 노선이 없어짐으로 한국에서 오는 공연단 방문이나 초청도 못했고, 인적 교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4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을 사할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금년으



로 연기되었고요. 또 한-러 지방 협력 포럼 때 한국 영화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부임해서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를 방문하면서 사할린 1세, 2세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희망사항과 고통을 듣다 보니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더욱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점이 제게는 작년 한 해 동안 느꼈던 새로운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지난해에도 출장소가 여러 사할린 단체와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함께 한 걸로 압니다.

-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광복절 기념행사, 김치축제 그리고 청소년 역사캠프 - 이렇게 세 가지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또 지난해는 신규 사업으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박물관 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활용하여 음력 달력을 제작하는 등 사할린 한인 문화 및 역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해마다 개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사할린주 교육부, 사할린 국립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사할린 국립대학교 언론·역사·동양학 대학과 처음으로 한국 영화 온라인 퀴즈대회, 한국 드라마 영화 토론회,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지요.

- 2023년에 출장소에

서 계획하는 사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신지요? 특히 영주귀국사업이 어떻게 시행될지 궁금합니다.

-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김치축제, 청소년 역사캠프,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사업으로 향토박물관과 함께 음력 달력을 발간했는데, 올해는 사할린 주립 미술관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미술관에 가보니 한국 관련 미술품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여 도감을 발간하고, 도감 발간 기념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직항이 개설된다면, 한국 학자를 초청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 문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할린 국립대에서 작년 말부터 사할린 북쪽에 있는 오하시 현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온라인 강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 출장소에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제 1차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했고,

2022년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결국 코로나 사태로 직항 노선이 없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관계가 어려워지다 보니, 2022년 영주귀국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동포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정된 동포분들이 늦었지만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한국적십자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2월~3월에 선정된 분들이 다 들어가시고, 금년 3차 영주귀국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을 저희 출장소에서 가장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 출장소 소장으로서 부임하신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사할린 생활에는 적응 되셨나요?

- 동포 어르신분들과 낯 시도 같이 가고, 조개도 잡으러 가고, 또 여러모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사할린에 몇 번 와보았고,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서 근무를 했으니 러시아 생활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 소장님께서 러시아어를 좀 하셨는데 최근에는 더 느신 것 같아요. 행사 때 인사말을 자주 러시아어로

하시네요.

- 구경 행사나 광복절 행사 등 우리 한민족 행사와 같이 동포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행사 때에는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그 외 문화·기념 행사는 되도록 러시아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보다 깊이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정적이고, 뜻깊은 음력 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2023년은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는데, 풍요와 번창을 기원하는 것이지요. 올 한 해는 다른 해보다도 동포사회 각 가정에 풍요와 번창이 깃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만5천 사할린 동포와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출신의 한인 어르신들, 사할린동포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모든 일들이 금년에 순조롭게 잘 풀려나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출장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귀택에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모 저 모

〈러시아 스키 길〉 전국 오픈 대중 스키대회에 사할린 주민들 참여 촉구

1월 16일부터 스포츠 행사 참가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다. 〈러시아 스키 길〉 스키대회가 2월 11일(토) 사할린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주요 경기는 아나와 지역의 트로이츠코예 마을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5개 코스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가장 어린 스키어들(2017년 이하 출생자)은 200m코스, 유년부(2013년 - 2016년 출생)는 500m, 초등부(2009년 - 2012년 출생)는 1km, 청소년부(2005년 - 2008년 출생)5km, 청년부(2004년 이전 출생)10km 코스에 참가하며, 또한 올해는 장애인들을 위한 코스가 조성되어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500m, 18세 이상 성인은 1km코스에서 경주를 하게 된다. 주 스포츠부는 이 대회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참가 허가를 위해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필수의료보험증을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날짜: 2월 1일 -9일까지, 장소: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롭스카야 거리, 29a. 시간: 오전 8시30분 - 16시까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생명보험증도 제출해야 한다.

스키대회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우승컵과 메달,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하고, 또한 참가자들 가운데 추천 당첨자에게는 후원 측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자동차 학원 교육 이용권, 음식 배달 이용권, 가족 여행 할인 이용권, 스키 단지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XLI открыт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массовой лыжной гонке "Лыжня России"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я на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ртовала с 16 января. "Лыжня России" пройдет 11 феврал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а главный забег состоится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на пяти дистанциях. Самые юные лыжники (2017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ладше) пробегут 200 метров.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2013-2016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преодолеют 500 метров. На километровую дистанцию выйдут участники 2009-2012 годов рождения.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2005-2008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посоревнуются в гонке на 5 километров, а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2004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старше - на 10 километров.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вновь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дистанции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младше 18 лет выступят на 500-метровке, островитяне старше 18 лет - на километровом отрезке.

Как сообщают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лыжн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Для допуска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комиссию паспорт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полис ОМС, справку о допуске от врач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 1 по 9 февраля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Хабаровская, 29а с 08:30 до 16:00), а также полис о страховании жизн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ёры стартов получают кубки, медали, дипломы, сувениры. Также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разыграны подарки от спонсоров -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обучение в автошколе ДОСААФ и на доставку еды, скидки на семейную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огулку, комплект лыж и др.

사할린에서 동원병들을 위해 수천 개 만두 준비

울리우스력 새해 명절을 맞아 직접 손으로 빚은 만두로 사할린과 쿠릴의 동원병들을 대접했다. 〈사할린 자 나쉬흐(우리의 참전을 위한 사할린)〉활동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의 민족과 디아스포라 대표들은 장병들을 응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승리를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후방을 안전하게 지키며, 매일 우리 장병들을 지지하고 돕고 있습니다.'라고 활동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이 말했다.

'우스페노스키' 훈련소에서 사할린의 병사들을 위한 지원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의 일환으로 각 민족의 대표들은 전통 조리법으로 만두를 만들어 병사들에게 대접했다. 이들은 러시아식, 부랴트식, 타타르식, 한국식 외 다른 조리법으로 수천 개의 만두를 빚었다. 타지키스탄 자원봉사자들은 전통 플로보(볶음밥)를 준비해 장병을 대접했으며,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은 훈련소에 일차적 필수품들과 필요한 물품, 따뜻한 양말과 속옷, 개별 위생용품들을 보급했다.

Для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приготовили тысячи пельменей на Сахалине

В день празднования стар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кормили пельменями ручной лепки. Т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аспор и народн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ешили поддержать военных в рамках акции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Мы с вами живем в непростое и очень трудное время! И назад не повернуть, идем только вперед за победой.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день мы помогаем и поддерживаем наших бойцов, обеспечивая им сильный тыл», — сказали участники и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Мероприятие в поддержку островных солдат прошло на полигоне «Успеновский». В рамках ак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готовили бойцам пельмени по своему традиционному рецепту. Они наделили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по рецептам русской, бурятской, татар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других кухонь. А таджикские волонтеры также накормили солдат сво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пловом.

Кроме того, волонтеры привезли на полигон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полезные вещи, такие как теплые носки, термобелье и средств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러시아의 우체국〉 사할린주 아동센터에 책꾸러미 배달

〈러시아 우체국〉이 아동 보호재단과 공동으로 사회기관의 도서관으로 책꾸러미 배달에 따른 행사를 공정한 가운데 고아원과 아동보호 센터의 학생들이 새로 출판된 백과사전과 문학서적을 받아보게 된다. 이 기획에 사할린주도 참여한다.

(8면에 계속)

독자들의 마음에 와닿은 최 빅토리아의 소설

지난 17일(화)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 빅토리아 작가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행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으로 새고려신문사 주최, 가가린 호텔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행사를 연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은 사할린 문학계에 떠오르고 있는 최 빅토리아 작가를 소개했다. 최 빅토리아(최옥순)를 알게 된 계기는 2017-2018년 쯤이었는데 그 때 영주귀국하신 1세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특히 일부 어르신들이 사할린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빅토리아는 주 한인협회에 이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었다. 배 사장은 새고려신문사가 최 빅토리아 작가와 인연이 깊다고 하였다.

최 빅토리아 작가는 이날 글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작문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독서를 워낙 즐겼지만 글은 써본 적이 없던 최 빅토리아 세관 전문가는 50세가 넘어서야 2019년 인터넷을 통해 3개월 글 쓰기 연수과정을 밟기로 했다. 바로 그때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러시아어 에세이 공모전에 글을 출품해 2위에 올랐다. 사실 그때 그가 쓴 '할머니에게 가는 길'이란 에세이는 '내가 바다가 될 때'소설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최 빅토리아 작가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주로 사할린한인에 관한 이야기다.

빅토리아는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2018년에 치매예방반을 만들어 수업을 시작했다. 연구가들에 따르면 글을 작성할 때 장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사람의 뇌 일부가 활성화한다 해서 빅토리아는 주한인협회를 통해 65-75세의 사할린한인들을 대상으로 2차례 치매예방반을 운영했었고, 새고려신문 주관, 가가린 호텔 후원으로도 러시아어 작문 치매예방반도 운영했으며, 2021년에 그의 단편소설 3편이 모스크바 대형 출판사가 출간하는 선집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사실을 새고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병일 교육원장의 부탁으로 사할린 한국교육에서 '함께 씁니다'란 글쓰기반에서 강사를 맡았다. 그때 70대 사할린 할머니들이 어머니, 가족에 대한 글을 썼는데 최 작가에 따르면 '글이 아주 좋았다'해서 새고려신문에도 게재되었다. 그리고 최 작가는 사할린주일반과학도서관에서도 글쓰기반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일반인, 특히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글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정말 마음에 든다. 특히 이들이 완성작을 제출할 때 너무 기쁘고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최 빅토리아 작가가 고백했다. 그래서 최 빅토리아 작가는 글쓰는 법을 익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2월에 다시 작문반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에서 최 빅토리아 작가의 첫 큰 작품인 장편 소설 '내가 바다가 될 때'가 소개가 되었다. 이미 소개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올레그 쿠즈네초프 문학상' 경연대회에서 우수작으로 뽑혀 500부가 출간되어 사할린주 내 모든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일부 남은 책은 이날 행사장에서 판매됐다.)

최 작가는 주로 사할린한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독자들은 그의 창의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책에는 주인공 사할린한인인 김 레아를 통해 한 가족의 4세대의 이야기를 펼쳐고 있다. 빅토리아 작가는 강제동원, 위안부, 1945년에 있었던 한인학살 테마 등을 담았다. 그리고 사할린한인들의 삶의 특징, 소련시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시대, 현대 시대 등이 잘 조망 돼 있다. 사할린한인들의 밥상도 잘



소개 되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무엇보다 최 작가에게 있어 가족, 부모 등이 우선적이란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와 닿은 책'이라고 이날 표명했다.

그리고 책에는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진 몇 장을 인용했고, 허 로만 시인의 작품 하나가 들어가 있고, 진 율리아 학자의 사할린한인 역사에 관한 부분 수정을 받은 적이 있어서 출판에 협조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소설 초안 수정에 나선 김 나탈리아 작가(유명한 김 율리 시인의 딸), 소설 감수를 맡은 문학가 나탈리아 에센코가 많은 도움과 힘을 보태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최 빅토리아 작가에게 많은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새 작품을 기대한다고 했다. 가장 재미있는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최 작가의 단편 3개가 들어간 <리조마.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 아닌 단편>선집이 주어졌다.

끝으로 최 빅토리아 작가는 독자들과 생각을 나눌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새고려신문사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최 작가의 사인회도 있었다. 새고려신문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의 일환으로 오는 2월에 사할린주향토 박물관 부장 진 율리아 박사와 만남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동천(冬天) / 서정주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읊기어 심어 놔더니
동지 설달 날은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늉하여 비끼어 가네.



"올 겨울 춥네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겨울엔 잘 나서지 않는 편입니다. 한강물이 바짝 얼었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없어요. 겨울이면 더더욱 저는 그저 반팔에 반바지 입고 제 서재에 틀어박혀 집필 중. 먹거리는 점점 더 집 앞 슈퍼마켓도 잘 찾지 않게 되네요. 그냥 이것저것을 스마트폰으로 주문, 겨울잠 나는 꿈처럼 간단한 걸 받아 요리해서 먹고 그랬어요. 한량이 따로 없네요, 생각해 보니.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결국 저 역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겪어야 했는데요. 기침이 심했던 걸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 귀도 들리지 않았었지, 참. 미각도 잃었었네요. 생각해보니 심각했네요, 그때, 저. 하지만 원래 그리 외출을 좋아하질 않으니, 심한 감기에 걸렸다고 되뇌이며 실컷 자고 넷플릭스를 즐겨보며 아내와 아들과 수다를 떨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걸린 뒤 이를 뒤엎나, 아내도 걸려 버린 거죠. 곧 이어 아들 녀석도 걸렸습니다. 첫 단추가 저였으니 여미든지 풀어 헤치든지 제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 그야말로 위기 경보가 한 단계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처럼 우리 식구 모두 완벽한 일주일을 지지고 볶으며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닌가, 나쁘지 않았습디다만. 가만,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저는 뭐, 마치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그 휴가의 분위기가 참으로 슬기롭고, 즐거운 그런 느낌은 아니었겠지요. 연극으로 치자면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에 가깝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함부로 입에 담기도 힘든 너무 큰 작품을 꺼낸 건가요. 아, 멀리 왔네, 멀리 왔어, 아무튼.

세상이 급변한 걸 느낀 건, 외출을 하지 않아도 서울은 이제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품목을, 먹거리나 재료 등을 거의 완벽하리만치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아닐까요. 저녁 나절 식사를 한 뒤, 다음 날 먹고 싶은 식재료나 물품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대어섯 시간 뒤, 그러니까 새벽이면 제 집 현관 앞에 배달되는 시스템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신선한 통영 굴이며, 참치 회, 소고기며, 제철 과일 등이 제법 그럴 듯하게 배달됩니다. 이마저도 귀찮으면 요깃거리들을 언제나 주문하면 됩니다. 곧바로 배달이 될 테니. 닭도리탕이며, 보쌈, 흥어회, 과매기 등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손질된 대게, 랍스터 등, 비용이 신경 쓰이지, 정말이지 세상 살기 편해졌습니다. 시험이긴 하나 미국에서는 드론 배달도 시작되었던군요. 버릇이 되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희 식구는 대부분 이렇듯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며 '결국 미래 사회로 우리는 진입한 건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봐요. 서정주 선생님의 시 속 갈망의 대상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어딘가에 있을 대상에 대한 미학이 아주 한 폭의 수묵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사진들이 수두룩. 인스타그램 유튜브 검색만으로도 우리는 마법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상상의 힘이 아주 압체적으로 그려진 이런 명시를 다시 음미하게 되면 잘 쓰지 않던 제 뇌의 영역이 아주 기분 좋게 꿈틀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 즉 브로카 영역도 아닙니다. MD라고 상상의 발현 그 이상을 담당하는 부위를 발견했다는데 저야말로 그 쪽 뇌가 이제 막 가동되는 걸 느꼈다고 그러면 '뻥치시네!' 이리시겠지요. 그냥 눈썹도 아닌 곱디 고운 눈썹을, 그걸 밤으로의 긴 여로 속 맑은 심성으로 씻어내 하늘에 터억하니 심어 두다니. 그걸 또 이 추운 겨울 날 비행하는 매 한 마리가 시인의 이런 간절한 그리움을 알아 채고선 비껴 가는 풍경이라니. 정말이지, 헐! 대에에에에에!"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주에서 1주일 만에 급성호흡기 질환 3천 건 발생

사할린주에서 1월9일(월) -15일(일)까지 1주일 만에 급성호흡기질환 바이러스 3,324 건이 접수됐다. 이 중 68건은 독감 감염 사례라고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주민 1만 명 당 감염 지표는 68.4명으로 올해 주간 분석에 따른 발병률은 감염 임계치를 넘는 97.4%이다. 감염 임계치를 초과한 지역으로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노글리키, 오하, 티몴스코예,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지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밝혀졌다.

사할린 지역의 전반적인 감염률은 22.9% 상승했고, 매일 급성호흡기 질환 사례 증가율은 일주일 만에 22.9% 더 상승했다. 독감 감염은 전 연령대의 주민에게서 기록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독감과 급성 호흡기질환 1,941 건이 접수됐으며, 1월 둘째 주 감염 집계에 따르면 임계치를 넘는 89.3%에 달했다.

양금덕 할머니, 강제동원 배상금 두고 "내일 죽어도 한국 돈 안받아"

시민단체, 외교부에 항의서한 전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두고 정부가 일본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협상안이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일 간 협의를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18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일본의 사죄 배상이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가 초말기에 들어갔다"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마련에) 일본 기업의 참여는 불분명하게 남겨둔 채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도록 하는 해법안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역사 문제를 돈 문제로 전락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측이 이 사안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

윤석열 정부는 대일 과거사를 졸속 봉합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안보 문제가 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항의서한 전달에 참석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어렵고, 기금 출연도 어렵다고 하는데 10여년 전 미쓰비시는 우리와 교섭하며 사과문 초안까지 내놨었다."며 "시민단체도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왜 안된다고만 하나"라며 박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득을 본 한국 기업이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에 기여금을 내놓고 이를 일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는 방식의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ОО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Шахмат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5 января 2023 г. провела очередную ежегодную турнир по блицу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соревнова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21 шахматист. По разным номинациям 11 человек призеров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дипломы, медали и призовые.

Взрослые: 1 место - Ден Дмитрий, 2 место - Лим Альберт, 3 место - И Ги Су.

Ветераны: 1 место - Ри Ян Чун.

Женщины: 1 место - Гон Алина.

Школьники: Син Альберт.

Также поощрительными призами награждены: И Ен Бок, Бомбизо Михаил, Син Борис, Гон Анита, Ким Сок Кан, Че Илья. Участникам турнира вручены от ООО "ЭкоИнтерСтрой" восточные (лунные) календари. В этом году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организации шахматного турнир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казал ООО "ЛИМКО" и ЮСМООК.

В плане - проведение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честь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турнира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Наш корр.



Виктория Цой: о творчестве, семье и обучению писательству

17 январ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состоя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с



сахалин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й Викторией Цой, которая громко заявила о себе, ста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ладателем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имени Олега Кузнецова (газет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 2 декабря 2022 г.).

Виктория рассказала о начале свое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опыта. В 2019 году случайно наткнулась в интернете на объявление о трехмесячных курсах по обучению писательским навыкам. Она стала слушателем курсов.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был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Виктория завоевала 2-ое место. Ее конкурсный рассказ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как сказал сам автор, является спойлером романа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В 2021 году три рассказа Викторией вошли в сборник «Ризома. Рассказы не для всех», изданный московским издательством.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творчество Викторией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связано с темо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этому она активно изучает различный материал.

Викторию волнуют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уехавших в Корею на ПМЖ, проблемы одиночества, старения, деменции. В 2018 г.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К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группы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через практику чтения и письма, где Виктория успешно применяла методику ученых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долгой памяти» мозга. Подобные курсы прошли и в ГК "Гагарин", и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2021 г.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Виктория вела группу «Пишем вместе», где пожилы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м за 70, пробовали писать о своей семье, матерях.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опыт оказался весьма удачным. Часть рассказов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ов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 Викторией большие планы. Она хочет вновь вести курсы для желающих обучиться навыкам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исьма. И надеется, что уже в феврале сможет вести эти курсы.

Центральной темой встречи стал разговор о романе-победителе.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шедших на встречу еще не успели прочесть этот роман, но вс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слушали искренние восторженные отклики первых читателей, задали Викторией немало вопросов, спрашивали, планирует ли автор продолжение книги, собирается ли писать дальше. Автор поблагодарила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Ли Е Сика, предоставившего фотографии для книги, поэта Хе Романа (в произведении использованы его стихи), а также историка Юлию Дин, давшей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ружелюбная атмосфера располагала к общению.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стречи люди долго не расходились. Все, кто приобрел в этот день книгу Викторией,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автографа.

Напомним, что встреч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Героем следующей встречи станет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Ждите анонс.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Сериал «Пачинко» удостоен приза Critics Choice Awards

Сериал «Пачинко» удостоен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емии Critics Choice Awards 2023 год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сериал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й состоялась 15 январ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Сериал «Пачинко», основанный на бестселлере 2017 год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 Мин Чжи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ассказ о четырех поколениях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и и после неё. На премию в 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претендовал ещё оди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Странный адвокат У Ён У», 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иностранный фильм» - романт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Решение уйти», но они остались без награ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емию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сериал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также получила работ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KBS World

Уровень антител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в РК – 98,6%

98,6% южнокорейцев имеют антитела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втор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рей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Предыдущи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97,6%. Дол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имеющих антитела, приобретён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естественного зараж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70%, что на 12,8% больше, че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ерв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в 2021 году.

KBS World

В праздник Соллаль загруженность автодорог будет умеренной

В этом году выходные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ороч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этой связи ожидается, что 22 января, то есть в день праздника, на скоростных дорогах на выездах из Сеула ожидаются проб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Сеула, в первый выходной день, 21 января, пробки будут умеренными, и проблем на дорогах не ожидается. Город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удет вести постоянный мониторинг ситуации на дорогах, представляя информацию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KBS World

Виктор Ан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тренерскую работу в Южную Корею

Шестикрат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известный шорт-трекист Виктор Ан, который выступал за сборные Юж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подал заявление на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ом конкурсе на открывшуюся вакансию тренера команды по шорт-треку мэрии города Соннам, что недалеко от Сеула. Местные СМИ опубликовали его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оторых он идет,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беседовании.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естных спортивных кругов, свои документы на вакансию тренера команды мэрии Соннам Виктор Ан подал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и прошел первый этап отбор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без личного общения в формате п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ов. После этого следует собесе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12 января. О результатах этого этапа, а также о зарплате и прочих условиях тренерской позиции ничего не сообщается. Известно лишь, что собеседование продлилось полтора часа, помимо Ана на эту же работу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я еще шесть человек.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именно в команде мэрии Соннама атлет тренировался, когда выступал за Корею.

После собеседования бывший атлет отказался общаться с журналистами, сказав лишь, что "позже будет шанс, чтобы все рассказать". Мэрия Соннам должна огласить результаты отбора 31 января.

Напомним, что Виктор Ан имеет также корейское имя Ан Хён Су. Родился в 1985 г.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ступал за сборную этой страны, завоевав на ОИ-2006 в Милане три

золотых и одну бронзовую награды. Был многократным чемпионом мира, считался, пожалуй, сильнейшим шорт-трекистом планеты, за что получил прозвище "император шорт-трека". Однако в 2008 г. спортсмен получил травму, не смог отобраться на Олимпиаду-2010. Затем принял предложение России, сменил гражданство и стал выступать за РФ. На Олимпиаде-2014 в Сочи сумел повторить миланский результат, завоевав больше всего наград - три "золота" и одну "бронзу". Из-за допингового скандала вокруг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иктор Ан не был допущен к ОИ-2018 в Пхенчхане, хотя он не проходил ни в каких "допинговых списках" и никогда не был уличен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запрещ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Пытался продолжать выступление за сборную России, но в 2020 г. заявил о прекращении своей спортивной карьеры. В РФ ему предлагали должность трен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но он отказался. По словам, причиной стали лич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 жена не захотела жить в РФ и воспитывать там дочь. Вскоре Виктор принял предложение китайцев и вошел в тренерский штаб олимпийской сборной КНР, что было негативно воспринято у него на родине. На ОИ-2022 в Пекине сборная КНР сумела завоевать две золотых, одну серебряную и одну бронзовую награды. После этого известия о Викторе не было, н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после Олимпиады он вернул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бъявлены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Итхэвонской трагедии

13 января специальный штаб полиции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ичин Итхэвонской трагедии опубликовал результаты своей работы. Причиной трагедии назвали давку, образовавшую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массового неуправляемого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С 17 часов плотность масс резко повысилась, а уже с 21 часа уровень плотности достиг такой степени, когда находящиеся в центре люди не могли свободно двигаться. В 22:15 в узком переулке образовалась давка, люди начали падать, после чего их затаптывали те, кто был позади из-за постоянного неконтролируемого движения общей массы.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гибли 158 человек, многие получили травмы различной тяжести. Осно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гибели людей стали компрессионная асфиксия и гипоксия головного мозг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пик давки в период с 21:00 до 22:30 давление на человека в месте трагедии составляло от 224 до 560 кг. Причиной произошедшего названы ошибки в работе органов, отвечавших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скольку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была прогнозируема с учётом массового наплыва людей. Заве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на 28 человек. 23 дела переданы в прокуратуру. 24 сотрудника полиц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Ёнсан-гу,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Сеульск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рпорации обвиняются в причинении смерти по неосторожности из-за ненадлежащего исполн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Шесть человек заключены под стражу.

Парламентарии РК и Японии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у жертв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13 января в Токио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ой и японо-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арламентских ассоциаций.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том числе, проблема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протектората Японии над Корее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 Ён Гё заявил, что спор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необходимо решать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Для этого, по его словам, необходим искренний диалог.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также план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их обменов на этот год.

Ли Чжэ Мё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ытается уничтожить оппозицию

12 января лидер крупней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ровёл новогоднюю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Он заявил,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на словах выступает за един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на самом деле ведёт двойную иг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ытается уничтожить оппозицию, оказывая на неё давление. По словам Ли Чжэ Мёна, он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лагал провести встречу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и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остаётся в силе. Касаясь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лидер оппозиции предложил выделить 30 трлн вон (24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Из этих средств можно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расходы на оплату жилья, расширить помощь в кредитовании населения,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задолженностей домохозяйств. Ли Чжэ Мён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 сформировать экстрен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ки и реформировать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Между тем,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родолжает настаивать на том, что подозрения в получении пожертвований от Doosan Group и других компаний в обмен на выдачу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вменяемое якобы лидеру оппозиции Ли Чжэ Мёну,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реступлению, квалифицируемому как взятничество или коммерческий подкуп с участием третьих лиц. Председатель врем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Чон Чжин Сок заявил, что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вший з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попав на допрос в прокуратуру, пытается обойти закон. Комментиру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Ли Чжэ Мёна, правящие силы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а полна односторонних утверждений.

В РК изучат культурную ценность праздников и сезонных обычае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ассмотрело вопрос о признании национальны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ряда праздников и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обычаев. В их числе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праздник полнолуния Тэпорым, праздник холодной пищи Хансик, летний праздник Тано,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Управление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К до ию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пределит, какие праздники и обычаи будут внесены в реестр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тра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его были включены традиционная новогодняя игра ютнори, приготовление квашеных овощей кимчи, мелодия Ариран, культу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дежды ханбок.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апомнили, что праздники и сезонные обычаи, передающиеся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обладают обществе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ценностью, поэтому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признаны нематериальны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RKI)

Обострение вокруг 38-й параллели: Пхеньян и Сеул идут на принцип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могу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на серьёзный конфликт

На фоне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ушел на второй план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ежду тем КНДР и Южная Корея обмениваются воинственными заявлениями, подкрепляя их различными шагами по наращиванию мощи вооружений. Ряд политиков и военных США беспокоит эта ситуация, так как Вашингтон не хочет получить еще один очаг конфликта, на который придется реагировать. Американцы признают, что в случае конфликта им будет крайне непросто удерживать Сеул и Пхеньян от серьезного «выяснения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ое может закончиться десятками жертв с обеих сторон. И если раньше Вашингтон и Пекин снижали напряжение между своими «подопечны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о сейчас американ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ами полны напряженности, а США и КНР ищут способ «насолить» оппоненту.

Ракеты, бомбы и беспилотники: КНДР держит в тонусе США и Южную Корею

Действия КНДР не оставляют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то Пхеньян продолжает форсированными темпами наращивать свои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арсеналы, открыто используя их как средство давл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США и Южную Корею. 2022 год оказался в этом плане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За год Страна чучхе произве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8 серий стартов,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ыло запущено 73 ракеты. Запускались самые разные типы ракет —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и крылатые,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е и жидкотопливные, новейшие модели, про которые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мало что знают, и те, которые уже давно устарели, назем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и те, что запускают с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с бронепоездов, тягачей и со стационарных площадок. По поводу некоторых серий стартов до сих пор идут споры на тему «ка что это было?» В частности, есть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КНДР также испытывает гиперзвуковое оружие.

Стоит вспомнить, что КНДР также периодически устраивала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трельбы из пушек и систем РСЗО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границ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Кроме того, военные Страны чучхе пошли и на необычный для себя ход, когд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днимали в воздух до 100 и более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вплотную подлетая к границе, чем провоцировали тревогу у южнокорейцев и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США, заставляя ВВС РК также поднимать в воздух десятки своих боевых машин и приводить в полную боеготовность системы ПВО.

7-8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 политике КНДР в области вооруженных ядерных сил». По своему содержанию этот документ стал ф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ценной ядерной доктрин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которой определяется, когда и при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Пхеньян дает себе прав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амое мощное оружие (Я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коротко, то КНДР хотя и считает ЯО «средством защиты» и не намерена его применять первой,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дает себе право на превентивный удар, если создастся реальная угроза вражеской атаки. Кроме того, введена и концепция «мертвой руки», то есть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алгоритма приме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отив врагов, если даже центры управления и всё высшее руковод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гибнут. В целом, КНДР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ла порог приме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едусмотрев такие же концепции и схемы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е есть у признанны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При этом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ВНС, подчеркнул:

Обладание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является нашим законным и неотъемлемым правом. Мы не намерены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ам же закон — ядерная доктрина был немедленно переведен на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и опубликован на доступных иностранцам интернет-сайтах КНДР. Из этого было хорошо видно, что документ был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внешнего потребителя».

Параллельно КНДР вела актив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и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фронте, подчас не стесняясь в выражениях, доходя до прямых оскорблений в адрес руковод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дложенную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Юн Сок Ёлем «смелую инициативу»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Ё Чжон назвала «крайне глупой», персонально указав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что «вся КНДР его ненавидит». Ким также на будущее предупреди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что Пхеньян «не намерен общаться» с Сеулом, пока там правит Юн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В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всё та же Ким Ё Чжон назвала «собачьим лаем» сомн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по поводу результатов ракетных запусков КНДР, пообещав им, что «они сами скоро всё увидят».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обще выдался весьма напряженным дл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26 декабря в воздуш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вторглись пять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Несмотря на тревогу, поднятые на перехват два десятка истребителей, штурмовиков и вертолетов, южнокорейцы не смогли сбить ни одного дрона КНДР, хотя открывали огонь. При этом один беспилотник ухитрился добраться до Сеула и залететь в запретную для полетов зону. Как призна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е,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была произведена съемка важ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РК, включая комплекс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Этот инцидент выявил серьезные бреши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ПВО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дет до сих пор, по его результатам ожидаются серьезные оргвыводы.

А 26–31 декабря в Пхеньяне прошел очередной пленум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который, похоже, заменил новогоднюю речь Ким Чен Ына. Итоги пленума позволили понять, чем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новом 2023 году. Ким назвал Южную Корею «очевидным врагом», а США обвинил в создании в регионе «азиатского варианта НАТО».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го и централь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в 2023 году было названо «масс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экспонентный рост ядерных арсеналов КНДР». Ким также вновь напомнил о праве на превентивное примене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реди иных задач нового года был назван запуск ново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и вывод спутника на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Буквально «под бой курантов» 31 декабря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ередачи в войска 30 «сверхкрупных» комплексов РСЗ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данные системы «могут быть оснащены тактическим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и способны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Если резюмироват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ержала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 напряжении целый год, а также пообещала, что это продолжится и далее, анонсировав ещ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Сеул рвется в бо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и Сеул не оставался в долгу, не стесняясь как на словах, так и в конкретных действиях отвечать Пхеньяну.

В частности, Южная Корея, как с США, так и в трех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 с участием еще и Японии, стали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ь самы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учения на всех мыслимых фронтах — на суше, воде, воздухе, под водой,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е и даже в кос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 учениям привлекались самые мощны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виды оружия — авианосные группиров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атомные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и прочее. В новом 2023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запланировали провести более двадцати совместных маневров, включая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на которые КНДР обычно достаточно нервно реагирует.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так называемую «трехосную систему защиты»,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истемы ПРО, ПВО, а также ракетные силы, целью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нанесение как удара возмездия в ответ на атаку Пхеньяна, так и превентивных ударов. 11 января в ходе общения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заявил, что Юг «должен обладать та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ему ответить на любую атаку Севера ударом в сто, тысячу раз мощне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К продолжают наращивать свои возможности. Хотя в СМИ внимание обычно привлекаю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 и Южная Корея их проводит тоже. Так, буквально 30 декабря военные РК объявили о «ракетном прорыве», успешно испытав твердотопливную ракету, которая будет выводить военные спутники на орбиту.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до этого также была успешно испытана нов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Хенму-5», которую за ее огромную боеголовку весом 8-9 тонн, называли «ракетой-монстром». Данная ракета способна, если верить южанам, уничтожать любые бункеры, где может находить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РК параллельно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свой ВПК и 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не скрывая, что она будет иметь активное не только мирное, но и военное применение.

В целом же стоит помнить,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рмия отнюдь не является «мальчиком для битья» и весьма крупная по размерам. В ВС РК служит более полу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что делает ее службой по размерам в мире.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사할린과 쿠릴 학생들에게 무인기 작동법을 전문적으로 교육

올 학기에 사할린 학생들의 디지털 지식 향상을 위한 수업이 시작된다. 현재 사할린 교육기관에서는 새로운 학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교사들을 위한 자격 향상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과 정보통신 과목의 교사들이 드론 조립, 프로그래밍, 조종을 연구하고 있다. 이 수업은 사할린 아이티 파크의 최첨단 장비로 교육이 조성됐다.

"우리는 교육과정에 디지털을 도입하여 학교 벤치에서부터 고능력 전문가 양성을 시작했다. 무인기 장비를 다루는 활동에 따른 새로운 과목 개설을 위해 '관토리움(양자의 세계)'과 '토츠키 로스타(성장점)'를 포함해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시각을 확장시키고, 장래 직업을 결정하도록 돕는다."고 주 교육부의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강조했다. '관토리움' 지역 자원센터의 교사들과 '사미' 설계국 기술자들이 교사로 나선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드론의 비행제도 설계, 드론 실험 시 안전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프로그램 작성의 용어들을 익혀야 하고 무인기를 통해 얻은 정보 처리의 기초를 알아두어야 한다. 로봇공학과 원격 지역 탐사 연구로서 학생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거라 전망한다. 이 모든 훈련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 활용성은 오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까지 무인기 작동에 따른 수업은 사할린 지역 모든 학교에서 시작된다. 사할린주 37개 교육기관에서 올 3분기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며, 2차로 18개 학교가 교육에 참여한다.

사할린의 선수들, 극동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16개 상 획득

극동 연방관구 유·청소년 및 청년 육상 선수권대회가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된 가운데 자바이칼, 연해주, 하바롭스크, 부랴티야, 사하 공화국, 아무르주, 히브리리 자치구, 사할린주에서 막강한 육상선수들 300명이 경기에 출전했다.

사할린에서는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흠스크, 유즈노쿠릴스크의 말로쿠릴스코예 마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선발된 육상선수들이 출전했다.

경기 결과 사할린의 육상 선수들은 18세 이하 남녀 청소년 경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로 총 11개 획득, 단체별 3위를 차지했고, 20세 이하 남녀 청년 그룹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로 총 5개 메달을 획득했다.

[우리말로 깨닫다]

외래어는 우리의 모습이다

외래어는 국제화나 세계화 시대에는 불가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국가 간의 교류는 물질, 인적인 것으로 교류에는 반드시 언어와 문화가 수반됩니다. 강제적으로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강제적인 힘이 작용하면 생채기가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들어온 일본어 외래어는 상처를 남겼고, 사람들이 상처라고 깨달으면서 하나 둘씩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와리바시', '벤포', '다팜' 같이 누가 봐도 일본어 같은 말은 생활어였지만 금세 지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나 '구두'처럼 우리말인 줄 알고 있는 말들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한자의 모양으로 들어온 수많은 일본식 한자어는 인식조차 못한 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입장', '취급', '취조', '장소' 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입장(立場)은 일본어에서는 'tachi(立), ba(場)'처럼 고유어로 표기되지만 우리말에서는 한자어 음독으로 읽어 '입장'으로 번역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한자어라고 생각하여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자어도 외래어입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였기에 고유어 취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자어도 차용어입니다.

영어로 대표되는 서양어도 엄청난 속도로 우리말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외래어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예 일본어식으로 모양이 바뀌어 들어온 단어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불펜'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어휘를 제외하고도 번역 없이 외국어가 그대로 외래어가 되어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일부는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들어왔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우리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수단을 보면 버스나 택시, 오토바이나 트럭 등이 그렇습니다. 이른 시기에 들어온 자전거는 한자어로 남아있네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외래어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의 '알람'을 끄고, '샤워'를 합니다. '삼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바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티셔츠'를 입거나 '스웨터'를 입고 가방에 '노트북'을 넣고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외래어는 흥수입니다. 밀물처럼 우리 삶에 밀려와 있습니다. 생활 속의 외래어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전문분야로 가면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별할 수 없는 어휘가 한 가득입니다. 전문성을 자랑하듯 전문가가 외국어를 외래어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외래어가 자기들만의 은어처럼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용어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은어입니다. 패션을 이야기하는 디자이너의 말은 정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외래어가 딴 세상의 언어생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외래어를 쓰지 말자든가, 없애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래어는 그 자체로 언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한자어도 없애야 할 겁니다. 허나 한자어를 없애자고 했던 여러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과거가 있습니다. 순우리말이라는 말에서 '순'이 한자어인 모한 일입니다. '우리말 쓰기 캠페인'이란 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 바랍니다. 언어는 사고와 태도를 반영합니다. 굳이 고유어가 있는데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마음이나,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외래어와 외국어를 쓰는 것은 말이 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래어를 쓰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외래어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양금덕 할머니, 강제동원 배상금 두고 "내일 죽어도 한국 돈 안받아"

시민단체, 외교부에 항의서한 전달

(3면의 계속)

피고인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도 없는 정부안을 두고 토론회 현장에서도 항의가 나왔고 일부 토론회 패널도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해당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피해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양금덕 피해자는 17일 정부안을 규탄하는 광주 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바라는 것은 일본의 사죄"라며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는 어떤 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일 간 협상을 서두르면서

서도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제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7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은 16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호응조치로 소위 '사죄와 기여'에 대해 일본 측에 강조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려 방안 중 하나인 '대위변제'를 진행할 경우 일본 가해기업이 참여하는 통로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조 차관은 "그것도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출처: 프레시안)

[신간] '모자의 나라 조선'

조선은 왜 모자의 나라일까?

왜 그렇게 많은 모자를 만들었을까?

그 많던 조선의 모자는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

조선 사람은 모자를 명예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기며 의복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도 신발은 벗지만, 모자는 벗지 않는다. 식사 중에는 물론, 심지어 왕을 대할 때도 모자는 벗지 않는다.



'모자의 나라 조선' (이승우 지음 / 주류성)

'모자의 나라 조선'(이승우 지음 / 주류성)은 조선 시대 존재했던 수많은 모자가 왜 생겼다가 왜 사라졌는지 이야기한다.

조선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딴 세상이었다. 신분 차별이 극심하였다. 신분 차별은 옷차림과 쓰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선의 관모(冠帽)는 신분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노출하

고 있기에 조선 사회와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다. 조선 사회에서의 관모는 주로 반상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상용화되면서 착용자와 용도에 따라 그 종류와 형태가 수백 종류로 불어나 분화해 나갔다.

조선의 선비들은 의관정제(衣冠整齊)를 선비가 지켜야 할 금도로 여겼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관모를 갖춰 썼다. 반상을 가리지 않고 맨머리는 용납이 되지 않았다. 상민들도 양반의 삶을 선망하여 모자를 쓰면서도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어울리는 독특한 모자를 만들어 썼다.

조선에서의 모자는 의복의 장식품 또는 장신구의 역할을 넘어 신분과 계급, 직업, 나

이, 성별을 상징하고 분별하는 일종의 사회적 코드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교에서 비롯된 상하 간의 예의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젠더)까지 포함하고 있었기에 모자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이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조선의 모자 깊이에 있는 해석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선 여성들이 사랑했던 겨울철 필수품인 난모(방한모)를 세밀하게 추적한 것은, 몇몇 복식 연구자들의 논문을 제외한다면 이 책이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조선의 모자를 단지 조선 문화사의 일부로만 간주하지 않고 조선의 모자가 조선 사회와 조선의 역사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배경을 냉정하게 파헤친다.

저자 이승우 씨는 한국역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의 회원으로 있는 역사연구가다. 저서로는 시베리아에서 무장 독립 투쟁 중 실종된 아름다운 청년 이위종의 장엄한 서사를 추적한 『시베리아의 별, 이위종』과 한·일간에 얽힌 역사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전쟁, 굶주린 일본 두려운 한국』 등이 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러시아의 우체국〉과 아동보호재단이 러시아 79개 지역으로 700개의 책꾸러미를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보살피는 사회기관들에 배송하여 도서관 책들을 보충해주고 있다. 이 자선행사는 3년째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 책꾸러미에는 가장 어린 아동을 위한 동화와 시집 출판물과 유치원생들을 위한 백과사전, 또한 문학서적, 참고서와 유아용 장난감들이 포함돼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3개 사회기관의 학생들이 중요한 선물들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아동보호 협력 센터들로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페니스', 트로이츠코예 마을의 '즈웨즈드니', 스미르니흐 구역에 '라두가' 기숙학교이다.

2020년과 2021년 12월에 〈러시아의 우체국〉은 국내 1,047개 고아원에 책꾸러미를 보급하여 아동보호재단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자선행사의 협력자들이 극동지역과 알타이 변경에 장애아 380명을 위해 책꾸러미와 의류를 보내기도 했다.

«Почта России» доставит посылки с книгами в детские цент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та России» анонсировала совместную с Фондом защиты детей акцию по доставке книг в библиотеки соци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их домов и центров семей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получают новые издания энциклопеди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роект охватит 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7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ступит 700 посылок с книгами. Так «Почта России» и Фонд защиты детей пополняют библиотечные фонды в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курирующих ребят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Добрую акцию проводят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В каждую посылку кладут печатные издания сказок и стихов для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рассказы и энциклопедии для дошколят, а также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литературу, справочники и игрушки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ие важные подарки получают воспитанники сразу трех учреждений. Это центры содействия семейному устройству — «Феникс»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и «Звездный» в Троицком, а также школа-интернат «Радуга» в Смирных.

В декабре 2020 и 2021 годов «Почта России» помогла Фонду

защиты детей обеспечить новыми книгами 1 047 детских домов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в 2021 и 2022 годах партнеры доброй акции отправил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в Алтайский край книги и одежду для 380 ребят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니 워즈두흐' 스키 단지에서 전국 <눈의 날> 기념

전국 <눈의 날>에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을 초대한다.

이 행사는 1월22일(일)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에서 진행한다고 지역 스포츠부가 전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스키 단지 하부역에서 방문객을 위한 오락 프로그램과 무료 간식으로 시작한다.

스키 단지 중간역의 카페 '드루즈와(우정)'에서는 도자기 장난감 색칠 활동교실이 시작되고, 이후 동물 모양의 도자기 마그네틱에 색칠 활동을 한다.

단지 상부역에서는 13시부터 15시까지 사진사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돌리나'로 방문객들이 자리를 옮기고, 15시부터 오락 및 음악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17시에는 추첨하여 방문객들에게 행사 협력체가 제공하는 선물을 증정한다.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снега отметят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весело отмети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снег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22 янва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Праздник начнется в 11:00 с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и бесплатных угощений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ниж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В это же время в кафе «Дружба» (средняя площадка) стартуе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росписи керамической игрушки, а после участники распишут керамические магниты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зверей.

На верхней площадке с 13:00 до 15:00 гостей будет встречать фотограф.

После обеда праздник переместится в Долину туристов. С 15:00 там начнутс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и музыкальная программы, а в 17:00 разыграют среди гостей призы от партне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계시는 김(한)창숙 님께 드리는 축하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할머니에게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Любимое фото нашей семьи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건강한 매일매일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А еще желаем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ира и любви. Пусть все люди вокруг будут счастливы, делая и Вас счастливой.

사랑합니다!

가족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욱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